제주대학교

“Revolution OS”

|  |  |
| --- | --- |
| 과목명 | 오픈소스서비스개발방법론 |
| 담당 교수 | 윤석찬 |
| 학과 | 컴퓨터공학과 |
| 이름 | 바야르마그네 |
| 학번 | 02008-72087 |
| 제출날짜 | 2010.09.10 |

Revolution OS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. 영어는 좀 할 줄은 알지만 영화가 영어로 자막이 한국어로 있고 하니까 제 모국어가 아니라서 100% 이해를 하지 못 했습니다. 그렇지만 대충은 이해를 했습니다. 아무튼 영화를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세상이 빠르게 발달되고 변화 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영화를 봐서 그보다 더 빨리 발달되고 있구나,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구나 이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.

Linux…linux에 대해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은 잘 모릅니다. 한 두 번 건드려보기도 했네요. 처음부터 windows만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windows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처음 linux를 사용해봤을 때 솔직히 많이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환경은 windows와 비슷하긴 하지만 왠지 좀 불편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. Linux 환경에 딱 들어가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이란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요, 웃기긴 하지만. 아직은 linux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. 교수님들, 선배들, 사람들이 linux를 배우어라, 배우어라 하지만 linux의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네요. 아까 이 영화를 한 번 더 살짝 보니까 많은 질문이 떠오르네요.

Linux가 좋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사람들이 windows를 많이 사용하나 이라는 질문을 하고 싶네요. 혹시 windows가 그냥 일반인들한테 사용하기가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, linux는 전문가들한테만 좋은 것 아닌가 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. 아무리 linux이 무료다, source가 open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한테는 그것이 별 다를 것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. Unix가 나온지 오래 되긴 했지만 왜 사람들이 windows를 더 많이 사용하나요. 물론 컴퓨터를 살 때 windows를 무료로 제공해주긴 하지만 linux가 windows 보다 더 좋고 사용하기 편했으면 사람들이 컴퓨터를 살 때 windows말고 linux를 설치해달라 할텐데 왜 그렇지 않은 것을까요…? 미국이나 Europe 쪽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시아에선 Singapore, Malaysia, China 그리고 한국 물론 우리 나라 몽골 등 몇 개 나라에 가봤지만 제가 봤을 때 일반 사람들 중에서 linux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. 제가 windows 너무 좋아해서나 linux를 싫어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저뿐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linux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저도 지금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네요.

여기까지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linux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질문 많은 것 같네요. 모르겠습니다, 아무튼 영화를 한 번 더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. 만약에 몽골어로 번역된 것 있으면 찾아보고 싶습니다.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과 생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